

로티의 신실용주의와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의 의미*

Rorty's Neo-Pragmatism and its Implications on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Development

박 옥 남 (Ok Nam Park)**

목 차

- | | |
|----------------------------|---------------------------------|
| 1. 서 론 | 3.4 연대(Solidarity) |
| 2. 철학과 정보조직시스템 설계 | 4. 로티의 신실용주의의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에서의 의미 |
| 2.1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와 철학의 의미 | 4.1 도메인 중심의 접근법 |
| 2.2 실용주의 | 4.2 도메인 영역 정의 |
| 3. 로티의 신실용주의 | 4.3 시스템 설계 방법론 |
| 3.1 반이원주의(Anti-Dualism) | 5. 결 론 |
| 3.2 언어(Languages) | |
| 3.3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패러다임이나 인식론으로 대변되는 철학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로티의 신실용주의가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로티의 철학적 논의의 중심 요소인 반이원주의, 언어, 자문화중심주의, 연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로티의 개념이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 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 근거, 설계 접근법, 방법론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철학적 기반과 정보조직 시스템 구축이라는 영역의 주요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다른 인식론 또는 철학적 기반을 적용한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study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philosophical basis such as paradigms and epistemology in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development. The study aims at providing implications of Rorty's neo-pragmatism on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development. The study discussed Rorty's main concepts - Anti-Dualism, Languages, Ethnocentrism, and Solidarity, and further how these elements are utilized in system design. The study focuses on philosophical basis,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development approach, and methodology. It has values in that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other philosophical discussions to be applicable to knowledge organization.

키워드: 로티, 신실용주의,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방법론, 철학

Rorty, Neopragmatism, Knowledge Organization System Design, Methods, Philosophy

* 본 논문은 2015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ponda@smu.ac.kr)

논문접수일자: 2016년 1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1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2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235-259,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1.235]

1. 서론

분류시스템, 시소러스 주제명표목표로 대변되는 정보조직은 문헌정보학에서 필수영역 중 하나로 여겨왔으며,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역시 많이 수행되어왔다.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이론적 접근법 및 방법론적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는데, 여전히 이론과 방법론적 지침사이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Mai 2002).

도메인 중심의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Beghtol(1998), Hjørland와 Albrechtsen(1999), Mai(2002)는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에서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용자나 이용자가 속한 영역마다 정보요구가 상이하므로 듀이 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과 같은 일원화된 정보조직 시스템은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연구 역시 도메인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도메인의 영역을 어떻게 정의 또는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도메인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을 기존과는 다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결여된 채 도메인 중심의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패러다임(paradigms)과 인식론(epistemologies)으로 대변되는 철학적 기반은 세계, 사물,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주요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철학적 기반은 실제에서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표현되는지를 논의한다. 이러한 가치로 인해 철학적 기반은 문헌정보학에서 학문적

연구나 연구경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Budd 1995)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다. 철학적 기반이 제시하는 관점이나 가치가 분류시스템, 시소러스, 주제표목표 등의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Mai 1999). 패러다임과 인식론은 사물, 세계, 지식을 생성하고 인식하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므로 어떠한 패러다임과 인식론에 기반을 두느냐에 따라 정보조직 시스템은 상이하게 설계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패러다임이나 인식론이 정보조직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시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철학적 기반이 정보조직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Mai(1999), Almeida(2012), Szostak(2015) 등의 연구에서 이미 논의된 바가 있었다. Mai(1999)는 포스트모더니즘, Almeida(2012)는 퍼스(Peirce)의 실용주의, Szostak(2015)은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철학적 기반이 정보조직 시스템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철학적 기반과 정보조직 시스템 구축 사이의 논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로티(Rorty)의 신실용주의(neo-pragmatism)가 정보조직 영역에 제공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구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로티의 철학적 기반이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로티의 철학적 논의를 살펴보고, 철학적 논의를 통해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 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를 철학적 기반, 설계접근법, 방법론을 중심으로 제시

하였다.

어떠한 인식론에 기반을 두느냐에 따라 정보조직 시스템 구축의 접근법 및 방법론,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 연구에서 중요 시 되어야 할 요소 등은 다르게 제시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요소들이 모든 정보조직 시스템 구축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보조직 시스템 구축이라는 영역의 주요 분야인 접근법 및 방법론에 대해서 철학적 기반과 연관 지어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한 것으로 다른 인식론 또는 철학적 기반의 정보조직 시스템 적용을 위한 예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 정보조직 시스템은 용어와 개념 사이의 관계 및 용어 사이의 관계를 정립한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조직 시스템은 taxa 노미, 분류 시스템, 시소러스, 주제 표목표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또한 도메인은 정보조직 시스템이 설계되고 사용되기 위한 범위 및 영역으로 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철학과 정보조직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철학의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의 의미를 논의하고, 로티의 신실용주의의 모태인 실용주의의 주요 개념을 논의하고자 한다.

2.1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와 철학의 의미

패러다임(paradigms)과 인식론(epistemologies)에 대한 이해는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에 있어

서 중요한 요소이다. 각 패러다임과 인식론이 지식, 세계를 관찰하는 관점 및 가치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며 이는 통제어휘, 시소러스, 분류시스템 등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시 유사한 것(likeliness)과 이용자에게 상관성(relevance) 있는 것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어떠한 패러다임과 인식론을 기반으로 정보조직 시스템을 설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다. 또한 철학적 기반은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의 접근법 및 방법론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시 논의되는 접근법이나 방법론은 철학적 기반 없이 제시되어 철학적 기반에서 접근법으로, 접근법에서 다시 방법론으로 이어지는 연계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고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철학적 기반을 논의한 Hjørland(2003)는 정보조직에서 활용 가능한 일곱 개의 패러다임 - 경험주의(Empiricism), 이성주의(Rationalism), 비판주의(Criticism), 역사주의(Historicism), 해석학(Hermeneutics), 실용주의(Pragmatism), 비판적 사실주의(Critical Realism) - 의 주요 개념을 논의한 바 있다. Mai(1999)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정보조직 시스템을 해석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출발은 '언어(Language)'이다. 언어보다 우선한 사고는 있을 수 없으며, 언어는 단지 세계에서 실존하는 개체를 지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자기가 속한 사회의 구성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조직의 출발점은 정보조직이 사용되어야 하는 도메인이며, 그 도메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요소이다. 즉, 정보조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표준어휘(standard terminology)를 생성하는 것이며, 생성된 정보조직시스템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도메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Dousa(2011)는 찰리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 듀이(John Dewe, 1859-1952)로 대표되는 고전 실용주의와 정보조직시스템에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퍼스의 실용주의는 전제, 추론, 유도의 세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데, 전제 자체는 진실이나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경험적 실험을 통해 입증되거나 해결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지식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할 때 정보조직은 생물학적 분류시스템과 같이 과학적인 조사로부터 파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존재하는 지식과 과학적인 동의 사이의 접점을 발견하는 것이 정보조직의 주요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퍼스가 실용주의를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제임스는 일상생활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임스는 실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목적이다. 어떠한 것이 진실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목적과 상황 속에서 그것이 믿을만하다고 만족시킬 때 가능하다. 즉, 진실은 실용적 유용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할 때, 정보조직시스템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반영해야 하며,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면적 접근 등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듀이는 퍼스와 제임스의 접점을 지향한다. 퍼

스와 같이 객관적 실험을 강조하지만, 제임스와 같이 상대성을 중요시 한다. 듀이에게 진실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며, 실재를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듀이의 관점에서의 정보조직은 목적,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Almeida(2012)는 퍼스의 실용주의와 정보조직에서의 시사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퍼스의 실용주의가 경험 및 실험을 강조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정보조직시스템에서 퍼스의 실용주의를 적용할 경우 전제를 귀납법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조직시스템에서 표현되는 개념의 효과성을 테스트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정보조직시스템에서 표현되는 언어의 구조가 의미나 객체의 구체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조직시스템은 보다 실용적이며 효과적으로 그 도메인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Hjørland(2013)은 경험주의, 합리주의, 역사주의, 실용주의의 네 가지 인식론이 정보조직에 시사하는 바를 정보의 적합성을 결정짓는 우선순위에 따라 논의하였다. 경험주의는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찰을 강조하였으며, 관찰자의 가정이나 선이해(pre-understanding)는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 합리주의는 논리, 수학적 모델, 공리시스템 등이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최우선이며, 경험적 데이터는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 역사주의는 선이해, 문맥, 역사적 발전과정, 진화론적 관점에 대한 배경지식이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우선순위이며, 의미가 해석될 수 없는 탈맥락화된 데이

터(decontextualized data) 및 간주간적으로 통제된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다. 실용주의에서 정보의 적합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목표나 가치, 연구의 목적에 대한 정보이며, 가치중립적인 정보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은 정보조직은 철학적 기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어떠한 하나의 철학적 기반이 정보조직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철학적 기반의 중요성은 각 페러다임이나 인식론이 정보조직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철학적 기반과 정보조직 시스템 구축 사이의 논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로티의 신실용주의가 정보조직 영역에 제시하는 의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2.2 실용주의

실용주의(Pragmatism)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활발하게 논의된 페러다임으로 진실(truth)은 유용성이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진실이 실제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경험주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역사주의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실용주의는 예정된 또는 영속적인 상태(stable state of affairs)를 거부하며 세계는 사용하는 도구, 인간의 활동,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계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Rorty 1999).

실용주의는 크게 두 학파로 나눌 수 있는데, 한 학파는 듀이, 퍼스, 제임스로 대표되는 고전

적 실용주의이며, 다른 학파는 로티로 대표되는 신 실용주의이다. 실용주의 학자가 추구하는 목적은 불변하는 진실 대신, “불만족스러운 현재가 만족스러운 미래로 대체되며, 그러므로 희망으로 대변되는 미래”이다(Rorty 1999, 32). 실용주의학자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진실 대신 유용성이며, 이론 대신 실제이다. 즉, “이론은 실제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실제를 이론보다 퇴보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Rorty 1999, 30). 실용주의학자가 주장하는 이러한 기본 개념에 있어서는 고전적 실용주의나 신 실용주의가 모두 동일선상에 있으나 고전적 실용주의가 2차 대전에서의 파시즘이나 인간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로티의 등장으로 실용주의는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로티는 고전적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을 수용하는 등 다원주의 및 언어를 강조하는 그만의 철학적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실용주의의 부활을 가져왔다(이유성 2008). 즉, 고전적 실용주의와 신 실용주의는 기존적인 철학에 있어서 상대주의, 실제, 유용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무엇이 유용한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퍼스는 과학적 실험을 통한 증명, 제임스는 목적 및 유연성, 듀이는 도구로서의 언어, 목적, 가치, 결과에 대한 분석, 로티는 연대 및 자문화중심주의를 유용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용주의 학파를 동일시하여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에서 로티의 신 실용주의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3. 로티의 신실용주의

로티(Rorty)는 1967년 그의 최초의 저서인 『언어학적 전환(Linguistic Turn)』에서 객관성, 합리성, 실제성을 부정하고, 유용성, 실용성, 반실제성을 제시하며 실용주의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Donovan 1995). 그는 『언어학적 전환(Linguistic Turn)』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언어를 인간이 세상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정의하고 다른 실용주의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용성(usefulness)과 실제(practice)를 강조하였다.

그의 철학을 요약하면, 첫째로 그는 이원성(dualism)을 부정한다. 즉, '유용하다 또는 유용하지 않다'로 구분되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실제에서 얼마나 적용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다. 실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또는 덜 유용한지이며 더 또는 덜 동의할 수 있는가이다. 그는 이러한 개념을 반실체주의(anti-essentialism) 또는 반표현주의(anti-representationism)로 지칭하였다. 둘째, 그는 자민족주의(ethnocentrism)를 강조하였는데, 그의 자민족주의란 인종주의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얼마나 더 유용한지 또는 동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본인, 본인이 속한 그룹, 단체 또는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셋째, 로티는 객관성보다는 연대 또는 일치(solidarity)를 강조한다. 즉, 객관성이라는 것은 상호주관적인 동의(intersubjective agreement)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의 이러한 대표적인 개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3.1 반이원주의(Anti-Dualism)

실용주의 학파에서 듀이나 제임스가 이원주의를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로티 역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발견된 것과 만들어진 것 등으로 이분하여 구분하는 이원주의를 부정한다. 그는 다른 언어가 있을 뿐이며, 관련 문맥이나 흥미에 따라 언어가 결정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기린과 은행계좌가 있는데 기린은 발견된 것이고 은행계좌는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은행계좌는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기린을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기린이 인간의 필요나 흥미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린 역시도 인간의 필요나 흥미에 따라 다르게 기술(description)될 수 있다(Rorty 1999, xxvi).

로티는 이원주의를 비판하면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울은 없으며 우리의 필요나 흥미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Rorty 1980, 357). 로티는 역사나 문화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불변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고 모든 것은 경우에 따라 기술 또는 재기술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Rorty 1995, 162). 무엇이 현실(reality)이며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한 구분은 현재의 사회적 목적에 무엇이 더 또는 덜 유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분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또한 객관과 주관의 구분은 무엇이 더 용

이하계 합의나 동의에 이를 수 있는가와 대체 되어야한다. 즉, 현실은 사회적인 목적에 따라 기술된 실재일 뿐이다. 진실은 인간의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세계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은 인간의 활동에 대한 기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Rorty 1989, 5).

3.2 언어(Languages)

이원주의를 부정하는 로티의 이러한 관점은 그의 언어철학에 기반을 둔다. 로티는 지식은 언어적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철학과 자연의 거울(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1980)에서 언어는 인간에 의해 창조된 은유이며 해석 가능한 것으로 정의한다. 로티에게 모든 것은 해석가능하며 언어적 해석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 현실이나 자연 역시도 어떠한 문제의 객체로서 언어적 해석의 맥락에서만 객관화될 수 있으며, 현실이라는 것 역시 언어에 의해 매개되고 해석되어 기술되는 현실일 뿐, 언어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Rorty 1980, 378).

그의 이러한 언어관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language game)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고정되지 않으며 언어의 의미는 객체와 언어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즉, 그 객체가 실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로티는 믿음, 지식, 진실은 언어 없이는 존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어떤 특정한 믿음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 의해 창조된 언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이다(Rorty 1989, 9).

이러한 관점에서 로티는 모든 인간의 경험을

언어적 활동이라고 간주하고, 문장이나 단어는 그 자체로는 의미를 지닐 수 없으나 다른 문장이나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어떤 단어나 문장은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티는 언어를 현실을 단순히 표현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인식한다. 중요한 것은 언어를 사용하여 기술한 것이 과연 우리에게 목적에 부합하는 지이며, 언어의 의미는 사회적 정당화(social justice)를 거쳐 사회적 관습(social practice)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정된다. 그러므로 언어는 역사와 문화라는 맥락에 의존적이며 역사와 문화의 해석에 달려있다. 요약해보면, 로티의 언어철학은 언어의 우연성(contingency of language)이나 문화적 상대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 로티에게 언어는 “역사적인 우연성의 산물(the product of historical contingency) (Rorty 1989, 219)”이다. 그러므로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언어는 기존의 성립된 언어를 계속해서 대체한다.

3.3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

로티의 반이원주의나 언어철학은 그가 자문화중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게 무엇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유용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특정 문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며, 역사적 맥락이나 상황을 추월하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의 자문화중심주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식, 사실, 믿음을 기술할 때 우리가 속한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하나가 다른 것만큼 유용하거나 우월할 수 있다는 상대주의(relativist)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상대주의에서 더 좋은 것 또는 더 나쁜 것은 있을 수 없다(Rorty 1991, 23). 하지만, 로티에게는 더 좋은 것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은 그 민족 또는 문화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자문화중심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우리는 우리가 속한 역사적, 사회적 한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실이나 지식의 정당성은 문화나 민족에 기반한 사회적 관습(social practice)의 문제이며 그에 대한 정당화는 사회적 관습을 공유하는 인간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로티에게 진실이나 지식은 “잘 정당화된 믿음(a well-justified belief)”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Rorty 1999, 22).

3.4 연대(Solidarity)

연대는 로티의 실용주의에서 또 다른 주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그의 저서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1989)에서 로티는 사적인 영역(the private)과 공적인 영역(the public)을 명백하게 구분한다. 사적인 영역은 개인이 개인용어(vocabulary)를 창조하는 공간이며, 공적인 영역은 상이한 관점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공적인 영역은 사람들이 커뮤니

티에서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곳이며,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대화에 의해 연대를 형성해가고 이렇게 연대가 가능한 것은 실제적인 목적(practice purposes)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로티의 연대에 대한 논의의 요점은 객관성에 대한 대안으로 “연대에 의한 상호주관적인(intersubjective) 동의”를 제안하였다는 것이다(Rorty 1991, 21). 로티에게 객관성은 어떤 커뮤니티의 제한(limit)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상호주관적인 동의를 얻음으로 확보되는 것이다. 그는 과학 분야에서 어떤 실험이 인정받는 주된 이유는 어떤 불변하지 않는 객관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과학 커뮤니티의 연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호주관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것은 연대에 의한 것이다.

4. 로티의 진실용주의의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에서의 의미

철학적 기반은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의 접근법 및 방법론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기반으로 ‘철학적 기반-접근법-방법론’으로 이어지는 연계를 통해 정보조직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

로티의 관점이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에 제공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로티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조직 시스템은 도구이다. 왜냐하면 로티는 언어, 지식, 진실을 모두 도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보조직영역은 정보조직 시

시스템 설계가 실제, 문체, 세계를 다루기 위해 이용자가 사용하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학문임을 인정해야한다. 또한 로티에게 중요한 구분은 얼마나 더 유용한가이므로, 정보조직 시스템이 이용자에게 더 유용하기 위하여 로티가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로티는 특히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시 접근법과 방법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시의 접근법으로 도메인 중심의 접근법(Context based approach)을, 둘째, 도메인을 정의하는 요소로 믿음의 정당화 및 실제적 목적 공유를, 마지막으로 정보조직 시스템을 설계할 때 방법론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언어 및 이용자 참여를 통한 연대를 활용할 것을 제시한다.

4.1 도메인 중심의 접근법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구분되는데, 도메인에 상관없이 적용가능한 일반적인 시스템(one-size-fits-all)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접근법(traditional classification approach)과 성공적인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도메인 이용자의 요구나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한다는 도메인 접근법(Context-centered approach)(Albrechtsen and Jacob 1998)이 대표적이다. 로티의 논지는 이 중 도메인 접근법에 대한 인식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전통적 접근법은 도메인이나 이용자 그룹에 상관없이 고정되고 안정적인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전통적 접

근법의 전제는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이나 국제십진분류법(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과 같은 일반적 정보조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학문 분야나 국가를 초월하여 도서관 소장자료를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에 반해 Beghtol(1998), Nielsen(1998), Hjørland과 Albrechtsen(1999), Mai(2002) 등은 전통적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접근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에 있어 도메인 접근법(Context-centered approach)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도메인 접근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듀이십진분류법과 같은 일반적 정보조직 시스템은 개별 도메인의 지식구조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치, 종교, 교육과 같은 분야의 정보조직에 있어서 편견(bias)은 때로는 불가피한 것이다(McIlwaine 2002). 즉, 정보조직의 구조는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그 도메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조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 데이터베이스는 개신교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구조화 되어야 한다.

둘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과 언어의 사용을 지배하는 규칙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조직 영역은 더 이상 객관적인 현실을 표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이상을 버리고 이용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주관적인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Park 2008; Svenonius 1992).

셋째, 이용자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정

보를 처리하므로 지식의 문제는 개인과 별개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정보조직 시스템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개인 또는 도메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Nielsen 1998; Park 2008).

이러한 주장들은 지식이 도메인에 의존적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도메인 중심의 접근법(Context-centered approaches)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정보조직 시스템이 봉사해야 하는 도메인의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시의 의사결정, 예를 들어 어떤 용어를 선택하며, 어떻게 용어 사이의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인가는 이용자가 속해 있는 도메인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는 이용자, 상황, 도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용자 친화적인 정보조직 시스템은 이용자나 도메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확장시켜 정보조직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 이용자나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정보조직 시스템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적어도 정보검색의 최적화나 이용자 의사소통의 조력과 같은 정보조직 시스템의 목적이나 기능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Mai 2006).

로티의 신 실용주의는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접근법에 있어서 도메인 중심 접근법에 철학적 기반을 제시한다. 로티에게 언어, 믿음, 진실을 비롯해 그 어떤 것도 맥락과 별개로 이해될 수 없다. 로티는 객체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가 언어, 지식, 진실을 논의할 때, 이들은 사회적 실행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와 역사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한다. 또한 자문화중심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이 진실이며, 옳고, 선한가에 대한 판단은 특정 문화가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역사적, 사회적 한계에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문화에 옳다고 판단되는 것이 우리 문화에 꼭 옳다고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모든 논의에서 맥락(context)의 개념은 계속해서 강조된다. 이러한 로티의 개념을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에서 반영한다면 구축에 있어서 맥락의 중요성은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더 좋은 또는 더 나은 정보조직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시스템을 사용할 이용자 그룹 또는 도메인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이들이 어떤 시스템을 더 유용한 시스템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는 도메인 중심 접근법과 그 철학적 기반을 함께한다.

또한 로티에 따르면 지식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로티의 입장에서 정보조직은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절대적인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이상을 포기하고 정보조직 역시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거나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정보조직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술은 인간의 관심 또는 필요에 의존하며 사회적 실행과 연계되어 있으며 모든 것은 가변성을 지니므로, 그 어떤 누구도 세계를 기술하는 완전한 방법이나 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 지식의 기술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로티에게 정확성이나 중립성은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로티는 전통적 정보조직 시스템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정보조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로티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전통적인 정보조직 시스템은 세상을 보는 단지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정보조직 시스템이 모든 학문분야나 도메인에 동등하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

한국십진분류법과 듀이십진분류법은 학문에 의한 분류이며, 유-강-목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분류체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200의 종교부분을 살펴보면, 듀이십진분류법은 강(divisions)의 경우, 220번부터 280번까지 기독교를 다루고 있는 등 기독교적 성격이 많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독교 중심의 영미전통, 듀이가 신학대학인 Amherst 대학에 근무했었음으로 기독교 서적이 도서관 소장장서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던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한국십진분류법에 경우, 기독교는 230에 나타나고 나머지 강은 불교, 도교, 천도교 등과 같은 다양한 종교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듀이십진법은 우리나라와 같은 여러 종교가 혼재하는 국가에 적용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나라와 상관성이 높은 종교를 강목에 배치하였다(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2014). 이렇게 듀이십진분류법의 종교 클래스가 기독교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 중심의 편향적 시각 또는 종교에 대한 편견을 보여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오동근 2007).

듀이십진분류법의 200 종교와 마찬가지로, 800 문학 역시 듀이십진분류법에서 비판을 받는 클래스 중에 하나이다. <표 1>과 같이 강목

의 대부분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서양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한국·중국·일본 문학은 890 기타언어 문학 아래 895 중동 및 동남아시아 문학에 위치하고 있다. 800 문학 역시 서양문학을 중심으로 강목이 배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십진분류법의 경우 800 문학 강목단계에서 서양 중심의 문학 배열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배열된 것을 알 수 있다. 듀이십진법에서는 하위세목에 위치한 한국문학이 810 강목으로 배치되고 중국문학 및 일본문학과 같이 한국문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문학을 강목에 배치하고 있다.

듀이십진분류법의 서양적 또는 기독교적 분류체계의 배열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기독교적 편견이나 견해에 치우치거나, 서양 또는 자국우선주의의 분류체계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사서는 정치적, 종교적 견해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하며 모든 견해에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듀이십진분류법은 종교적, 정치적 견해로부터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이다(Shirky 2005; McIlwaine and Mitchell 2006).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형편에 맞는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다. 로티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듀이십진분류법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적 또는 서양적 색채는 편견이나 편향적 시각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객체는 발견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사회적·문화적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듀이십진분류법의 서양 중심의 문학배치, 한국십진분류법의 동양 중심의 문학배치는 정보조직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영향을 준 맥락 안에서 구성된 것이므로, 어느 것이 편견에 치우쳤다고 볼

〈표 1〉 DDC와 KDC의 종교 및 문학분류

KDC 200	DDC 200	KDC 800	DDC 800
200 종교	200 Generalities(종교)	800 문학	800 Generalities(문학)
210 비교종교	210 Natural theology(자연신학)	810 한국문학	810 American & Canadian literature(미국 & 캐나다 문학)
220 불교	220 Bible(성서)	820 중국문학	820 English & Old English literatures and other literatures commonly translated into English(고대 영문학 및 영어번역문학)
230 기독교	230 Christian theology(기독교 신학)	830 일본문학 및 기타 아시아 제문학	830 Literatures of Germanic languages in German(독일문학)
240 도교	240 Christian moral & devotional theology(기독교 도덕 및 신앙신학)	840 영미문학	840 Literatures of French [see subdivisions above](프랑스문학)
250 천도교	250 Christian orders & local church(기독교 교단 및 지역교회)	850 독일문학	850 Italian, Romanian literatures, in Italian(루마니아어 이탈리아문학)
270 힌두교, 브라만교	260 Christian social theology(기독교 사회 신학)	860 프랑스문학	860 Spanish & Portuguese literatures(스페인 및 포르투갈문학)
280 이슬람교(회교)	270 Christian church history(기독교 교회사)	870 스페인 및 포르투갈문학	870 Italic literatures, Latin(라틴어 이탈리아문학)
290 기타 제종교	280 Christian denominations & sects(기독교 종파 및 교파)	880 이탈리아문학	880 Hellenic literatures, Classical Greek(그리스문학)
	290 Other & comparative religions(기타 및 비교종교)	890 기타 제문학	890 Literatures of other languages(기타 제문학)

수 없다. 단지, 듀이십진분류법나 한국십진분류법에서 나타난 종교나 문학을 둘러싼 사회적·문화적 맥락이 상이할 뿐이며, 듀이십진분류법나 한국십진분류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맥락이 되는 도서관 장서의 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의 차이가 다른 정보조직 시스템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4.2 도메인 영역 정의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도메인 중심

의 접근법은 그 연구에도 불구하고 도메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영역을 어떻게 한정 지을 수 있을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로티는 이에 대해 도메인을 구성하는 두 가지 축(axes) - 목적(a common purpose)과 믿음의 정당화(justification of beliefs) - 을 제시한다.

도메인의 개념은 도메인 접근법을 주장하는 논문에서 조차 다른 의미, 다른 경계, 다른 용어를 가지고 다소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주제 도메인, 문맥(context), 담론, 업무 도메인, 학

문분야 등이 도메인 접근법을 주장하는 논문에서 사용된 도메인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도메인 중심의 접근법을 처음 소개한 Hjørland와 Albrechtsen(1995, 400)의 경우는 “사고나 담론 커뮤니티(thought or discourse communities)”로 도메인을 지칭하고 있으며, Hjørland의 후에 이어지는 도메인에 대한 논의에서는 도메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전문분야(specialties), 학문(disциплиines), 직업(trad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하나의 담론이나 사고 커뮤니티를 다른 커뮤니티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Beghtol(1998)은 도메인이 종종 주제 분야(subject fields)나 주제영역(subject areas)을 지칭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Albrechtsen과 Pejtersen(2003)은 인지적 업무 분석법(Cognitive Work Analysis)에서 도메인을 업무도메인(work domain)으로 지칭하고 있어 업무를 공유하는 곳을 도메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적 업무 분석법에서도 업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업무도메인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Mai(2006)는 도메인이 연구나 실행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메인에 대해서는 다른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도메인을 구분하는 또는 정의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로티의 정당화, 자문화중심주의, 연대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 로티는 도메인을 구성하는 두 가지의 축(axes) - 목적(a common purpose)과 믿음의 정당화(justification of beliefs) - 을 제시한다.

로티는 믿음의 사회적 정당화(social justification

of belief)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지식을 이해한다고 주장한다. 진실(truth)이나 합리성(rationality)은 그 사회에서 정당화 과정에 대한 기술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메인 영역은 어떠한 사실이나 실체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그 도메인과 다른 도메인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요소이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 분야에서 어떠한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떤 불변하지 않는 객관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커뮤니티에서 상호주관적인 동의에 의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다. 로티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도메인을 다른 도메인과 구분 짓는 요소는 그 특정 도메인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달려있다.

또한 두 번째 요소는 실제적인 목적인데, 이는 로티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난다. 공적인 영역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곳이며,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은 대화에 의해 연대를 형성해나가는데 연대가 가능한 것은 어떤 실제적인 목적(practical purposes)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지식이나 진실은 사회적 목적에 적합한 잘 정당화된 믿음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즉, 도메인은 개인의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변화시키는 곳이며, 각 개인이 사적인 영역 및 사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소유하고 있지만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목적(practical purposes)이 공유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을 공유함으로써 인해 연대가 형성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즉, 실제적으로 구성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로티에서 하나의

도메인을 다른 도메인과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로티의 논점을 받아들인다면, 도메인을 구분 짓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정보조직 시스템의 도메인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목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문학에 대한 정보조직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도메인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른 정보조직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다.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르면 810 아래 한국문학을 분류하고 있으며, 시, 희곡, 소설, 수필, 연설 등 문학의 장르에 따라 분류하고 하위를 다시 문학형식이나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학의 장르는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기도 하므로 시대 순이나 장르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전문학의 경우는 시가(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경기체가), 산문(소설, 수필), 구비문학(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등으로 구분되는 한편, 현대문학에서는 구비문학을 찾아보기 힘들다(박옥남 2015). 로티에 따르면 정보조직 시스템의 목적이 문학작품을 장르에 따라 배열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시대에 따라 문학작품을 교육하고 배열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에 따라 정보조직시스템은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국악으로 대표되는 전통음악에서도 실용주의의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개발한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의 경우는 궁중음악, 풍류방음악, 민속악, 연회 및 기타와 같이 장르를 중심으로 대분류를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아카이브는 정악, 민속악, 창작국악, 연회 등을 중심으로 대분류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

통음악자료분류법을 살펴보면 민속악이 총 10개의 대분류 중 6개를 차지하고 있어 분류체계에 많은 부분이 민속악에 치우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립국악원의 경우 궁중음악 및 풍류방음악을 정악으로 구분하고, 창작국악이나 복합·재현이 대분류를 차지하고 있어 분류체계에 있어 차이가 있다(강순애 2011). 로티에 자문화중심주의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정보조직시스템은 신실용주의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뿐 어느 정보조직시스템이 더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단지 두 개의 상이한 시스템은 그 시스템이 속한 역사적, 사회적 한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을 사용하여 국악정보를 검색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용자가 민속악의 비중을 궁중음악, 풍류방음악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거나 소장자료의 상당부분이 민속악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맥락, 유용성 및 사용의 목적이 정보조직시스템을 정당화한다. 반면, 국립국악원 이용자는 궁중음악과 풍류방음악을 정악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각 장르를 정악/기악/종교음악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검색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 및 맥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또한 정보조직시스템의 설계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영역인 도메인에서 이용자가 공유하며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며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시 가장 유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그 도메인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즉 그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이다. 요약하면, 이러한 믿음의

〈표 2〉 DDC와 KDC의 종교 및 문학분류

한국전통음악자료분류법	국립국악원 전통예술아카이브
0 총설	정악(성악/기악/종교음악)
1 궁중음악-제례악/연례악/고등음악	민속악(성악/기악/종교음악)
2 풍류방음악-성악/기악	창작국악(성악/기악/종교음악/기타)
3 민속악-성악I	연회(전통연회/창극/창작연회)
4 민속악-성악II	복합·재현(가무악/음악/무용)
5 민속악-기악I	
6 민속악-기악II	
7 민속악-불교음악	
8 민속악-무속음악	
9 연회 및 기타	

정당화와 목적은 하나의 도메인을 다른 도메인과 구별 지을 수 있는 요소이므로,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에 있어 개발자가 도메인과 이용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할 질문은 이용자들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을 공유하는가이다.

4.3 시스템 설계 방법론

도메인 중심의 정보조직시스템을 설계할 경우에 근거(Warrant)의 기반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중요하다. 로티의 관점에서 정보조직시스템에서의 자문화중심주의적인 편견이나 견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은 앞서 논의하였다. 다만 편견이나 견해를 정보조직시스템에서 제시할 때 보다 책임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로티는 근거의 바탕으로 언어, 대화, 연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 대화, 연대를 시스템에서 보다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시 도메인 중심 접근법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정

보조직 시스템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방법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Hjørland(2002)와 Albrechtsen과 Pejtersen(2003)의 연구에서 도메인 중심 접근법을 정보조직 시스템에 활용 시 고려해야할 요소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도메인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Hjørland가 2002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도메인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열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열한 가지 방법은 문헌분석, 경험적 사용자 연구, 역사적 연구, 장르 분석, 분류시스템 분석 등을 포함한다. Hjørland의 연구는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도메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접근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열한 가지 접근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Albrechtsen과 Pejtersen(2003)은 인지적 업무 분석론을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지적 업무 분석론을

활용하여 설계된 정보조직 시스템은 소설 검색 시스템(fiction retrieval system)인 북하우스(Book House)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인지적 업무 분석을 정보조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절차에 대한 언급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이용자 참여와 언어 활용을 시스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로, 소설 데이터 분석 및 담론분석을 활용가능한 방법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4.3.1 이용자 참여와 언어 활용

로티는 언어(language)와 대화(conversation)를 강조한다. 로티에게 정당화나 지식은 모두 대화의 문제이다. 그에게 공적인 공간(public realm)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므로 이러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이며 의사소통을 통해 연대와 동의를 만들어간다. 로티가 공적인 영역에서의 대화에 대해서 논의할 때, 개인은 개인의 언어와 정체성(identities)을 가지고 있으나 언어를 통해 동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도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며, 이용자와의 대화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용자의 참여는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정보조직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은 정보조직 시스템이 지원하고자 하는 도메인 이용자의 목적, 가치, 사회적 실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계속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자들과 이용자 사이의 연대가 형성될 수 있으며 결국 정보조직 시스템의 간주

적인 동의(intersubjective agreement)에 이를 수 있다.

이용자의 참여에서 정보조직 개발자들은 모든 구성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로티가 주장하는 대화를 통해 동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어느 그룹이나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커뮤니티는 소수의 독창적인 사람 또는 특정 소수가 강하게 제시하는 의견에 설득되거나 따라가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로티의 대화를 통한 동의를 강조하는 것은 엘리트주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대화를 통한 강조는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Kloppenber 1996). 그러므로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자들은 도메인 이용자의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켜야 하며, 이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자는 커뮤니티의 소수의 의견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되도록 소수의 전문가보다는 많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보조직개발자들은 언어적 철학자 또는 의사소통자로서 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소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은 로티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수의 전문가의 참여로 설계된 정보시스템의 용어는 실제 이용자가 쓰는 용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실제 이것은 정보조직 시스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로

티의 이용자 참여는 정보조직 시스템의 목적 및 범위 파악 - 용어 수집 - 용어 선택 및 구조 설계 - 평가 - 완성 - 유지로 이어지는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로티의 철학과 그 기반을 함께 하는 다음의 두 가지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4.3.2 소셜 데이터 분석

지난 수년 동안 시맨틱 기술의 발전과 웹 2.0의 확산으로 이용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웹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용자는 정보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로서 정보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생성된 정보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강력한 정보력을 발휘한다. 참여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대변하는 웹 2.0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다.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로 협업기반인 위키피디아, UCC나 이미지 중심의 유튜브 및 딜리셔스, 마이크로 블로깅 시스템인 트위터, 프로필 기반의 페이스북, 비즈니스 기반의 링크드인, 개인 미디어 기반의 블로그 등이 있다(유호중 2010).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용자는 태깅, 글,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정보는 동적이고 쌍방향적인 방식으로 공유되고 재생산되어 정보의 생태계를 형성한다. 소셜 미디어는 참여, 개방, 대화, 연결, 커뮤니티라는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로티의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 위키와 소셜 북마킹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로 대표되는 소셜 데이터의 특징은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다수의 이용자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이며,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용자가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셜 데이터는 로티가 주장하는 소수가 아닌 도메인의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며 언어를 사용하며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로티의 철학과 함께한다. 또한 로티가 주장하는 개인을 참여시킨다는 것이 자칫 엘리트주의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둘째, 로티의 다수의 참여를 반영하기 위한 소셜 데이터의 활용은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시 모든 단계 전반에 걸쳐 활용되어야 한다. 소셜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생산, 공유, 재생산되므로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시 이용자 요구 분석, 설계 및 수정단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셋째, 소셜 미디어를 이용자 참여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은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후에도 이용자가 설계된 정보조직 시스템에 대한 수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정보조직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웹2.0을 활용하는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에 나타나는 이용자의 용어를 파악하고 이를 정보조직 시스템에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로티의 철학은 지속적인 진화와 변화의 허용을 전제로 하므로 도구인 정보조직 시스템과 이용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도구가 제공되어야 그 도구가 사회의 신념과 실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Derrida(1992)의 “Acts of Literature”의 주제색인에 적용된 어휘이다. OCLC WorldCat을 통해 사서에 의해 색인된 어휘와 LibraryThing에 143명의 이용자에 의해 색인된 어휘와는 차이가 있다. 비평(Criticism), 저자명(Derrida) 문학(Literature), 해체이론(Deconstruction), 이론(Theory) 등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LibraryThing의 경우 논픽션(Non-fiction),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수사학론(Rhetoric theory)과 같은 저작의 장르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반면 OCLC는 면담(interview), 해석(interpretation)과 같은 연구방법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즉, 이를 고려하면 소셜 데이터 분석의 활용은 기존의 사서들이 주제색인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어휘의 발견을 가능하게 해준다.

〈표 3〉 OCLC WorldCat과 LibraryThing의 색인어 비교

OCLC	LibraryThing
Critique	Criticism
Derrida	Derrida
Literature	Literature
Deconstruction	Deconstruction
Theory	Theory
Interview	Non-fiction
Interpretation	Postmodernism
Philosophy	Poststructuralism
	rhetoric theory

소셜 데이터 분석은 대부분 기업의 이미지, 상품, 선거 분야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 설계에서는 많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Mika(2005)은 del.ici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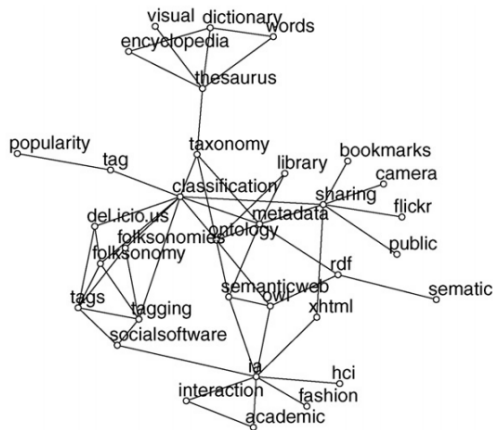
를 기반으로 한 온톨로지 모델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념-인스턴스-액터를 추출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폭소노미가 온톨로지와 같은 정형화된 형태로 활용될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소셜 데이터의 온톨로지로의 변환을 위한 관계 정립 및 클래스와 인스턴스 사이의 추상화/구체화를 위한 방법론이 구체화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박용민, 김보겸, 곽수정, 이재성(2014)은 소셜 미디어에서 추출한 단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소셜 데이터에서 추출한 단어의 빈도 및 단어 간 연계관계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생성하는 FTC(Frequent Term-based Clustering)와 계층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 GAAC(Group Average Agglomerative Clustering) 등 2단계의 클러스터링을 통해 소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클러스터 간 분류가 명확해지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김성훈(2015)은 소셜 미디어 분석을 위한 온톨로지 효용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의 구축된 모바일 관련 어휘집 및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러한 온톨로지에서도 제시하는 정형화된 클래스, 속성 등의 요소가 비정형화된 소셜 데이터 분석에 효용성을 지니는지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소셜 데이터 분석가들은 온톨로지를 활용하는 것이 소셜 데이터 분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소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정보조직시스템 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Semantic”이라는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소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정보조직시스템의 관계어, 상위어, 하위어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emantic”과 연관이 있는 “Ontology”, “Taxonomy”, “Thesaurus” 등은 관련어로 도출될 수 있다.



〈그림 1〉 del.icio.us에 나타난 “Semantic” 폭소노미(Mika 2005, 5)

4.3.3 담론분석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 이해하거나 논의하는 다양한 접근법이나 관점을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과 연계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론분석에서 담론은 “지식, 언어, 행위, 힘의 관계를 바라보는 비판적 렌즈”(서덕희 2011, 219)로서 담론분석은 사람들의 언어 안에 담겨있는 담화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담론분석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서덕희 2011). 첫째, 담론은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관찰된다. 담론분석을 위해서는 연구자는 행동이나 인지의 관찰보다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대화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면담 녹취록이나 문서와 같은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텍스트에 나타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연구방법이다. 둘째, 담론의 통시성 및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에 주목해야 한다. 담론은 담론이 형성되어온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담론은 텍스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관련된 다른 담론과의 연계성을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한 담론은 종이책의 위기라는 담론과 연계가 있다. 셋째, 담론의 힘(power)을 관찰하는 것과 담론이 어떻게 사람들을 주체화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위기와 사서자격제도라는 담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사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기사를 통해 기사는 독자로 하여금 도서관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하여 현재의 자격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위치를 담론에서 차지하도록 유도한다. 담론분석은 양적 또는 질적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텍스트에 나타나는 어휘, 문법, 의미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담론분석은 로티가 주장하는 사회적 구성체로서 언어를 바라보는 그의 언어철학과 인식을 같이한다. 담론분석은 사람들이 어떤 주제나 객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언어를 분석하여 주제나 정체성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며 언어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간은 문제, 지식, 실제, 또는 자신의 위치, 관점 등을 표현할 수 있다. 로티에게 언어는 자신의 신념, 가치관, 관점을 나타내는 도구이며, 모든 인간의 경험은 언

어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즉,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인간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 역사 등의 배경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언어를 방법론으로 사용하여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시 어떠한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을 밝혀낼 수 있으며 도메인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담론분석은 정보조직에서는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Morato, Llorens, Genova와 Moreiro (2003)은 담론분석이 정보조직 및 검색 알고리즘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담론변수인 장르, 레지스터, 도메인 어휘, 도메인 구조를 도출하고, n-그램, k-평균, Chen 알고리즘의 세 가지 알고리즘이 각각의 담론변수에 따라 정보를 얼마나 민감하게 조직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Chen 알고리즘이 모든 담론 변수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n-그램의 경우는 담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담론을 정보조직 및 검색 알고리즘에 반영할 경우 Chen 알고리즘이 보다 유용한 방법임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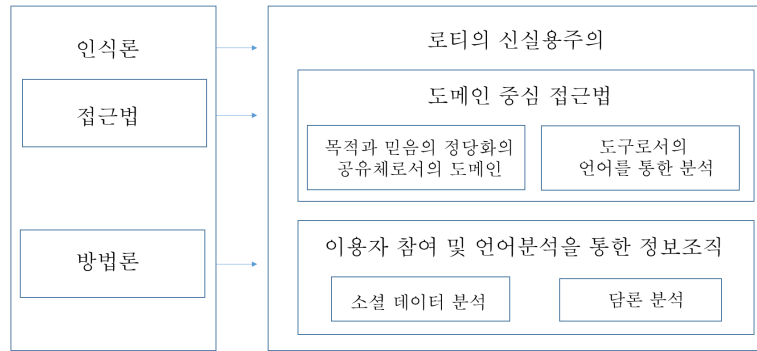
담론분석은 질적 또는 양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손홍숙(2013)이 페어클로우(Fairclough)

의 담론분석을 바탕으로 담론분석 절차를 제시한 것에 따르면, 우선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고, 사회문제를 텍스트와 사회, 또는 장르와 담론, 텍스트의 언어조직 및 단어분석 등을 통해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담론과 담론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아래 예와 같이, 고전문학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에 담론분석을 적용하였을 경우, 고전문학 교육이라는 사회문제를 설정하고, 고전문학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여기에 나타난 어휘를 도출하고, 최근 고전문학의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변형이라는 사회적 맥락분석에서 나타난 등장인물, 파생문화콘텐츠, 주요사건 등의 어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조직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표 4〉 참조).

이를 종합하여 보면, 로티의 신실용주의는 정보조직 시스템에 있어서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시의 접근법으로 도메인 중심의 접근법(Context based approach)을, 도메인을 정의하기 위하여 주요 요소로 믿음의 정당화 및 실제적 목적 공유를, 정보조직 시스템을 설계할 때 방법론으로 언어 및 이용자 참여를 활용하는 것에 인식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그림 2〉 참조).

〈표 4〉 담론분석의 정보시스템 적용

담론분석방법 절차	정보시스템 적용 예
사회문제 설정	고전문학 교육을 위한 정보조직 시스템
텍스트 분석	고전문학 텍스트에 나타나 있는 조직 및 단어 분석을 통해 장르, 시대 등의 어휘 도출
텍스트와 맥락 분석	고전문학의 현대 사회적 맥락 분석에서 나타난 고전문학의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변형을 위한 어휘(등장인물, 파생문화콘텐츠, 주요사건) 도출
수정 및 관리	수정 및 관리



〈그림 2〉 로티의 신실용주의와 정보조직시스템

5. 결론

정보조직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영역과 방법론적 개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즉,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 영역에서 철학적 기반, 접근법, 방법론 사이의 연계가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패러다임(paradigms)과 인식론(epistemologies)이 정보조직에서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고, 로티의 신실용주의가 정보조직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로티의 철학적 논의의 중심인 - 반이원주의(Anti-Dualism), 언어(Languages),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 연대(Solidarity)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철학적 논의를 통해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 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였다. 요소를 제시하기 위하여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 연구영역에서 연구되어야 할 요소 개발 시 접근법과 방법론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항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에 부여하는 의미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시의 접근법으로 도메인 중심의 접근법(Context based approach)을 제시하였다. 둘째, 도메인을 정의하는 요소로 믿음의 정당화 및 실제적 목적 공유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정보조직 시스템을 설계할 때 방법론으로 언어 및 사용자 참여를 통한 연대의식을 높일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언어 및 사용자 참여를 위해 소셜 데이터 분석과 담론분석이 로티의 철학과 그 인식을 같이 함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도메인의 실용적 정의 및 다원성을 바탕으로 한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범위설정, 이용자의 용어 및 참여를 통한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 방법론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어느 인식론에 기반을 두느냐에 따라 정보조직 시스템 구축의 접근법 및 방법론,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 연구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요소 등은 다르게 제시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요소들이 모든 정보조직 시스템 구축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의 제시된 철학적 근거, 접근법 및 방법론이 실제 정보조직 시스템 설계에서 적용된 사례 역

시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보조직 시스템 구축이라는 영역의 주요 분야 - 연구영역, 접근법, 방법론 - 에 대해서 인식론과 연관 지어 활용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한 것

이므로, 다른 인식론 또는 철학적 기반의 적용을 통한 정보조직 시스템 개발 연구 영역의 예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순애. 2011. KDC 제5판 '한국음악[전 국악] 및 동양 전통음악'의 항목 전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9: 107-142.
- [2] 김성훈. 2015.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에 적용된 온톨로지 개발 및 효용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3] 박옥남. 2015. 고전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온톨로지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267-290.
- [4] 박용민 외. 2014.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세부 주제 레이블링을 위한 2단계 클러스터링. 『정보과학회 논문지』, 41(3): 225-232.
- [5] 서덕희. 2011. 담론분석방법. 『교육비평』, 28: 218-239.
- [6] 손홍숙. 2013. 교육정책 분석을 위한 방법론 탐색: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교육학연구』, 51(1): 163-189.
- [7] 오동근, 여지숙, 배영환. 2014.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의 이해와 적용』. 대구: 태일사.
- [8] 오동근. 2007. 『DDC 22의 이해』. 대구: 태일사.
- [9] 유효중. 2010.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웹 홍보전략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11(5): 97-116.
- [10] 이유선. 2008. 『실용주의』. 살림지식총서, 324. 서울: 살림.
- [11] Albrechtsen, H. and Jacob, E. K. 1998. "The Dynamics of Classification Systems as Boundary Objects for Cooperation in the Electronic Library." *Library Trends*, 47(2): 293-312.
- [12] Almeida, C. C. 2012. "The Methodological Influence of Peirce's Pragmatism on Knowledge Organization." *Knowledge Organization*, 39(3): 204-216.
- [13] Albrechtsen, H. and Pejtersen, A. M. 2003. "Cognitive Work Analysis and Work Centered Design of Classification Schemes." *Knowledge Organization*, 30(3/4): 213-227.
- [14] Beghtol, C. 1998. "Knowledge Domains: Multidisciplinary and Bibliographical Classification Systems." *Knowledge organization*, 25(1/2): 1-12.
- [15] Budd, J. M. 1995. "An Epistemological Found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Library Quarterly*, 65(3): 295-318.

- [16] Donovan, R. 1995. *Rorty's Pragmatism and the Linguistic Turn*. In Hollinger, R. and Depew, D. ed. *Pragmatism: From Progressivism to Postmodernism*. London: Praeger.
- [17] Dousa, T. M. 2011. "Classical Pragmatism and Its Varieties: On a Pluriform Metatheoretical Perspective for Knowledge Organization." *Knowledge Organization*, 37(1): 65-72.
- [18] Hjørland, B. and Albrechtsen, H. 1995. "Toward a New Horizon in Information Science: Domain-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6(6): 400-425.
- [19] Hjørland, B. and Albrechtsen, H. 1999. "An Analysis of Some Trends in Classification Research." *Knowledge Organization*, 26: 131-139.
- [20] Hjørland, B. 2002. "Domain Analysis in Information Science: Eleven Approaches-Traditional As Well As Innovative." *Journal of documentation*, 58(4): 422-462.
- [21] Hjørland, B. 2003. "Fundamentals of Knowledge Organization." *Knowledge Organization*, 30(2): 87-111.
- [22] Hjørland, B. 2013. "Theories of Knowledge Organization: Theories of Knowledge." *Knowledge Organization*, 40(3): 169-181.
- [23] Kloppenberg, J. T. 1996. "Pragmatism: An Old Name for Some New Ways of Thinking?"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3(1): 100-138.
- [24] Mai, J. E. 1999. "A Postmodern Theory of Knowledge Organization." In *Proceedings of the ASIS Annual Meeting*, 36: 545-556.
- [25] Mai, J. E. 2002. "Is Classification Theory Possible? Rethinking Classification Research." *Advances in Knowledge Organization*, 8: 475-478.
- [26] Mai, J. E. 2006. "Contextual Analysis for the Design of Controlled Vocabularies."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3(1): 17-19.
- [27] McIlwaine, I. C. 2002.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An Investigation into the Fate of Some Special Classification Schemes." *Advances in Knowledge Organization*, 8: 479-485.
- [28] McIlwaine, I. C. and Mitchell, J. S. 2006. *The New Ecumenism: Exploration of a DDC/UDC View of Religion*.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 [29] Mika, P. 2005. "Ontologies Are Us: A Unified Model of Social Networks and Semantics." In *the Semantic Web-ISWC 2005*. Berlin: Springer Berlin Heidelberg.
- [30] Morato, J. et al. 2003. "Experiments in Discourse Analysis Impact on Information Classification and Retrieval Algorithm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9(6): 825-851.
- [31] Neilsen, L. M. 1998. "Future Thesauri: What Kind of Conceptual Knowledge Do Searchers Need?" *Advances in Knowledge Organization*, 6: 153-160.
- [32] Park, O. 2008. *Current Practice in Classification System Design: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Classification System Design Team Practice. Ph.D. diss., School of Inform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U.S.

- [33] Rorty, R. 1967. *The Linguistic Tur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4] Rorty, R. 1980.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Oxford: Blackwell.
- [35] Rorty, R. 1989.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6] Rorty, R. 1991. *Objectivity, Relativism and Truth*. Philosophical Papers,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7] Rorty, R. 1995. *Philosophy and the Future*. Saatkamp, H. J. ed. *Rorty & Pragmatism: The Philosopher Responds to His Critics*.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 [38] Rorty, R. 1999. *Philosophy and Social Hope*. London: Penguin Books.
- [39] Shirky, C. 2005. *Ontology Is Overrated: Categories, Links, and Tags*. Clay Shirky's Writings about the Internet, Economics & Culture, Media & Community. [online] [cited 2014. 12. 10.] <http://www.shirky.com/writings/ontology_overrated.html>
- [40] Smiraglia, R. P. 2002. "The Progress of Theory in Knowledge Organization." *Library Trends*, 50(3): 330-349.
- [41] Svenonius, E. 1992. *Classification: Prospects, Problems and Possibilities*. In Williamson, N. J. and Hudson, M. ed, *Classification Research For Knowledge Representation and Organization*. New York: Elsevier.
- [42] Szostak, R. 2015. "A Pluralistic Approach to the Philosophy of Classification." *Library Trends*, 63(3): 591-61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Soon-Ae. 2011. "An Analysis of the Division "Korean Music [Korean Traditional Music] & Orient Traditional Music" in the 5th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Bibliography Research*, 49: 107-142.
- [2] Kim, Seong Hoon. 2015. *Developing an Ontology and Its Usability to Social Data Analytics*. Ph.D. dis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 [3] Park, Ok Nam. 2015. "The Study on Design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Ontologies for Popularization."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3): 267-290.

- [4] Park, Yongmin et al. 2014. "Two-Level Clustering for Sub-Topic Labeling of Social Media Data." *Journal of KIISE*, 41(3): 225-232.
- [5] Seo, Deok Hee. 2011. "A Method for Discourse Analysis." *Education Review*, 4: 218-239.
- [6] Son, Heungsuk. 2013. "Exploring the Research Method of Education Policy: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1(1): 163-189.
- [7] Oh, Dong-Geun, Bae, Yeong-Hwal, and Yeo, Ji-Suk. 2014.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Korean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6th Edition*. Daegu: Taeil.
- [8] Oh, Dong-Geun. 2007. *Understanding of DDC*. Daegu: Taeil.
- [9] You, Ho-Jong. 2010. "A Study on the Web PR Strategy using Social Media: The Case of Chungcheong Tourism." *e-Business Research*, 11(5): 97-116.
- [10] Lee, Yu-Sun. 2008. *Pragmatism*. Salim Knowledg Series, 324. Seoul: Salim Publisher.